

줄 위에 서다

다른 길은 없다

잡을 것 하나 없는 외줄 위에 올라서서

중심을 잡느라 숨 고르는 남사당

앞은 구만리 발아래 아찔하다

어차피 가야하는

인생은 외줄타기

하늘 끝 그리움 세워놓고

굿거리장단 쿵-덕, 줄 위에 얹어

새 처 럼 팔 을 펼 친 다

한 손에 부채 들고 또 한 손엔 허공 잡고

한 발짝 옮길 때마다

등줄기 흐르는 식은땀

뉘라서 알리

수없이 떨어져 멍들고 깨진 상처

아픔도 익숙해진 흔들리는 바람 속

오늘도 외줄타기

앞만 보고 간다

중심을 잡느라 숨 고르는 남사당

앞은 구만리 발아래 아찔하다

어차피 가야하는

인생은 외출타기

하늘 끝 그리움 세워놓고

굿거리장단 쿵-덕, 줄 위에 얹어

새 처 럼 팔 을 펼 친 다

한 손에 부채 들고 또 한 손엔 허공 잡고

한 발짝 옮길 때마다

등줄기 흐르는 식은땀

뉘라서 알리

수없이 떨어져 멍들고 깨진 상처

아픔도 익숙해진 흔들리는 바람 속

오늘도 외출타기

앞만 보고 간다

🔄Revision #1

★Created 8 March 2025 07:56:32 by 강근숙

✎Updated 8 March 2025 07:59:59 by 강근숙